

History of 20th Century Korea @ UCC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 세기 초 한국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냉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시기 한국의 역사는 한국과 한국사람에게만 관련된 역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전쟁 전 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국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한국 사람인 저 뿐만아니라 모두에게 흥미로운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처럼 한국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UCC 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선택했을 때는 단순히 부족한 영어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익숙한 주제와 내용의 수업을 듣자는 생각으로 골랐지만

강의가 끝났을 때는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 중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한국 역사라도 다양한 시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신 케빈 콜리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같이 들었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Korea, which is a small country in East Asia has a long and complex history.

Especially its history in the twentieth centur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as going through a tumultuous period, being influenced by, but also influencing other countries.

However, Korean history is not only related to Korea itself and the Korean people, as the Korean War is known for the first major conflict of the Cold War.

For this reason, it is interesting to learn what conflic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had during this period and how they have been affected so far.

I also recommend this course to Korean students who come to UCC for their 'study abroad' year.

I chose the lecture just to make myself study a familiar subject for my poor English, but I felt the professor and classmates' affection for Korea, and got chances to see Korean history that was familiar to be in new and creative ways through class discussions.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Professor Kevin Cawley, who gave wonderful lectures, and to all my classmates.

Ahn Yeju (안예주).